

# 전북대, 알제리에 한옥 첫 수출

### 건축 업체 PYRAMIDE·대진과 업무협약... 알제리 내년 한옥 정자 보급

한옥 교육의 메카인 전북대학교가 한옥을 외국에 처음 수출한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한옥살게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선정되는 등 국내 한옥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전북대는 한옥 수출을 통해 한류 문화 확산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22일 한옥 건축 전문 기업인 PYRAMIDE, 대진(주)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YRAMIDE는 알제리에 2009년 9월 설립된 토목 및 가설 건축 공사업체다.

이 기업들과 손을 맞잡아 한옥 건축 물을 외국에 보급하고, 한옥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첫 시작은 알제리다. 전북대는 이후 알제리 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알제리 수도인 알제에 한옥 정자를 세워 한국 전통의 미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미국과 호주, 독일, 불가리 등에도 한옥 수출을 추진

하고 있어 한옥을 통한 세계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북대와 협약 기업들은 한옥 건축 및 기술력도 수출하고, 기술진과 재료 등을 협력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및 해외 봉사활동 등도 다채롭게 추진키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협약은 친환경·저탄소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지니고 있는 전통 한옥 소재 사업 기술 고도화 및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는 발전의 기

회"라며 "우리 대학이 보유한 한옥교육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양 기관과 전 세계 한옥 건축 분야 R&D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만 PYRAMIDE 사장은 "전북대와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앞장서겠다"며 "한옥의 세계화는 곧 한국 문화 전반의 세계화와 연결된다.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10대들 비판적 이해능력 키운다

### 전북교육청, 24일~내달 14일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실은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야호학교협력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민주시민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차시에 걸쳐 야호학교에서 진행되며, '요즘 미디어는 안녕하가요?'를 주제로 도내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성록(전북일보 NE 연구위원), 전오영(전북일보 편집국 총괄부국장)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가 특강 및 실습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뉴스의 가

치, 신문 읽기를 통한 글쓰기 방법 이해 ▲기자직성의 기본 요소 및 편집 ▲내부의 기사작성 실습 ▲뉴스 생체계 변화 이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비판적인 이해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중요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이라며 "협력과 연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 및 창의적 미디어 카드 뉴스 제작'을 주제로 1차 교실을, 지난 8월 '뉴스 팩트체크, 필름 리터러시 활동'을 주제로 2차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성교육 주제 전주중남유치원서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지난 21~22일 전주중남유치원에서 진행됐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도내 단위 학교, 국공립유치원, 지역이동센터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 수요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올해 총 120여 기관에서 235회의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중남유치원 학부모교육은 부모 참여수업의 일환으로, 3~5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이다. 강사로는 성교육하는 아빠로 잘 알려진 박재균 대표가 참여했다. 박 대표는 "아빠가 들려주는 성교육 성교육은 생활안이다"를 주제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갔다. 박 대표는 "자녀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성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해 지라면서 계속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비판적인 자세는 자녀가 마음 놓고 질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과 부모와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엄마를 통해 여성이란 개념을 배우고, 아빠를 통해 남성이란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곧 성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들이 커가면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선거 설명회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거 가이드 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6년 체육단체 통합선거 이후 진행되는 두 번째 회장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도 체육회는 ▲선출방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역할 ▲후보자 자격 ▲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회장 선거규정(안) 및 선거 진행 절차를 설명했다. 유인탁 사무차장은 "각 종목단체에서 선거절차 등을 잘 숙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



전북체육회는 22일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거 가이드 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체육회에서도 차질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각 종목단체에서는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며, 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성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지난 2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장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예방방역 안전확보를 위해 오전 오후 각각 50인 이하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및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 현장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기회의 지리가 마련됐다.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학교운영위원장 리더로서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영민 교육장은 "학교자치와 혁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뜻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2일~23일 양일 간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졸업작품전을 테마로 한 '2020 비전엑스포'를 개최한다.

## 전주비전대 '비전엑스포' 막 올라

### 정세균 총리 축하메시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2일~23일 양일 간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졸업작품전을 테마로 한 '2020 비전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홍순직 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에서 참석한 자리로 빛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대면행사로 전환된 2020 비전엑스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창의역량이 돋보인 작품을 만

든 학생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주비전대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한 그 기업이 애플이나 구글처럼 전 세계를 이끄는 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올해 2020 비전엑스포는 전주비전대 재학생들의 작품 및 대학과 가족기업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산학협력 성과와 재학생의 창의융합능력을 널리 알리며,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펼치는 축제 한마당이다. 올해는 특히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

명 기반의 졸업작품전'이라는 테마로 도내 40여개의 우수 산업체들과 함께 운영되며, 전체 17개 부스에 총 152개의 작품을 전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따른 전시장 출입인원을 50명으로 제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진행했다. 홍순직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의 열악한 교수학습환경과 소통의 부재속에서 그동안 탐과 노력으로 훌륭한 작품개발과 산학협력의 결과물을 출품한 학생과 기업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전주비전대는 앞으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융합인재로 성장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감사 한 마음, 고창군수협 수산물로 전하세요

고창 풍천 민물장어

고창 바지락

고창 지주식 재래김

고창 지주식 조미김

하나의 가치, 하나의 힘, 최고의 협동조합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창군수협입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880-1 유통사업과 063-563-6100/561-5949  
전화 주문/문의 063-561-5949 인터넷쇼핑몰 www.gcsuhyup.net